

나주 3곳 '드론 특별자유 구역' 지정... 산업 육성 발판

축산보·봉황면·나주호 일대 총 82.3km²... 비행 규제 면제·간소화 기체 개발·실증 5개월 이상 단축 가능... 市, 하천 관리체계 구축

드론(무인 비행기)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드론 특구)에 나주 3개 구역이 선정됐다.

나주시는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 주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확대 지정' 공모에 나주시가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드론 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드론 비행 사전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한다.

나주에서는 이번 공모에서 영산강 축산보·나주대교(22.3km²), 봉황면 일원(45km²), 나주호(15km²) 등 3개 구역이 뽑혔다.

이곳에서는 새롭게 개발하는 드론의 시험 비행

때 특별 감항 증명과 시험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이 같은 규제를 생각하면 드론 기체 개발과 실증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나주시 측은 설명했다.

나주시는 영산강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와 강변 시설물을 관리·감시하기 위해 드론 기술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호우 때는 하천 범람을 관찰하고 재난 취약 구간을 점검하는 등 드론 하천 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악취 배출 요인을 드론으로 측정·분석하는 기술을 실증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나주에는 전남 드론기업 80개사

가운데 가장 많은 27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드론 기체를 보유한 사설학원 등 드론사용사업자는 56개사로, 전남 464개사의 12.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드론 특구 지정을 통해 광주 북구, 고흥에 이어 호남권 드론 산업을 선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는 나주를 포함한 9개 자치단체 18개 구역을 드론 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기존 운영 중인 14개 자치단체 29개 구역을 포함해 이달부터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특구가 확대·운영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 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드론 기업·사업자에게 기술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성과"라며 "특구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드론 융복합 사업 모델을 발굴해 사업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 상공에서 악취 분석을 위해 대기를 포집하고 있는 드론 모습. (나주시 제공)

강진 새 단장 빈집·일자리 정보 한 곳서 본다



강진원(오른쪽) 강진군수가 지난 11일 병영면 빈집 새 단장 공사 현장을 찾아 준공된 집을 살펴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10월부터 원스톱 서비스 연말까지 빈집 20채 리모델링 귀농·귀촌인에 저렴하게 임대

강진군은 새 단장한 빈집 거주와 귀농·귀촌, 일자리 정보 등을 한데 모은 '강진살이 원스톱 서비스'를 10월부터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진군은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인구정책과 등 8개 관련 부서 팀장·실무자가 모여 서비스 구축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신규 마을 조성 정보 등 강진 이주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강진군은 인구유입 시책의 하나로 빈집을 새로 단장해 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한 임차료를 받고 제공하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오래 방치된 빈집 5채와 소유주가 직접 살 빈집 2채 등 7채가 준공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모두 20채 빈집을 새로 단장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빈집을 무상으로 빌리는 대신 소유주에게 최고 7000만원(7년 임대)까지 개선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집을 고친 뒤 전입하면 최고 3000만원 비용을 지원한다.

강진군은 매입한 빈집을 철거해 조립식 주택을 짓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군동·도암·윤천면에 조립식(모듈러) 주택 5채를 새로 지어 농산어촌 유학 가정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기준 빈집 새 단장 신청은 60건에 달했으며, 강진군은 빈집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사 대상 27채를 선정했다.

강진군은 하반기에 2차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사 대상 빈집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강진군 부군수를 위원장, 농어촌개발 추진단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당연직 5명과 위촉직 6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이다.

심의위는 대상자를 심의할 뿐만 아니라, 주택 발굴과 소유주 설득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농어촌의 고질적인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귀농·귀촌인에게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민선 8기 사업으로 출발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1일 병영면 빈집 새 단장 공사 현장을 찾아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인구 감소로 비어가는 강진의 농촌을 살리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라며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군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 농·특산물 활용 떡 브랜드 개발 '속도'

새싹삼 찹쌀떡 등 품평회 개최 지역 제과점·커피숍 판매 계획

장성군이 대표 떡 브랜드를 개발해 지역 농가 판로 넓히기에 나섰다.

장성군은 최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인근에서 '장성 대표 떡 품평회'를 열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떡 상품을 선보였다.

품평회에는 장성떡류가공협회 회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가장 인기가 많았던 떡은 '새싹삼 찹쌀떡'이다.

새싹삼 잎으로 떡을 만들고, 양금 소에는 새싹삼 뿌리를 갈아 넣어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장성군은 전국 새싹삼 유통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이다.

장성군은 지난달부터 떡류가공협회 회원들과 다른 지역 떡 제조업체를 견학하고 이론 수업을 들으며 대표 떡 상품 개발을 해왔다.



장성군(군수 김한중-가운데)이 최근 문화예술회관에서 연 '떡 품평회'에서 장성떡류가공협회 회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개발된 대표 떡 상품은 장성지역 커피 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품평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상품성을 갖춘 명품 장성떡 브랜드를 만들

겠다"며 "장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 스타기업에 그린이엔에스·퍼즐이앤씨

시제품 제작·경영 상담 등 6개 분야 맞춤 지원

나주시가 시제품 제작과 경영 상담 등 6개 분야 맞춤형 지원을 펼칠 '스타기업' 2곳을 추가 선정했다.

나주시 스타기업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그린이엔에스와 ㈜퍼즐이앤씨이다.

나주시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스타기업에 선정된 업체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맞춤 지원 분야는 시제품 제작, 마케팅, 정보화, 인증, 지적재산권, 경영컨설팅 등 6개 분야이다.

나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출연금 1억원을 포함해 총 15억3000만원을 사업 기금으로 내놓았다.

이달 현재 스타기업 21개사, 스타기업 앞 단계인 프래-스타기업 26개사를 지원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하고 신규 지정 기업에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그린이엔에스는 지난 2020년 과학기술총상 자원부 우수연구개발(R&D) 혁신제품으로 인정 받은 '실시간 다채널 AC·DC 전력 계측장치(mEMD)'를 생산하는 업체다.

㈜퍼즐이앤씨는 지반보강 신기술(떠쥬소일) 공법 시공 전문기업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리 지역 스타기업들이 국내·외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기업 경쟁력을 갖고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장흥군, 5개 대학과 '창업 활성화' 협업

청년 창업 정착 지원 협약...취·창업 행사 공동 개최 등

장흥군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대학 5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장흥군은 광주대·동신대·목포대·목포해양대·조선대 등 5개 대학과 최근 '장흥지역 청년 창업 정착 지원 및 라이즈(RISE) 협력을 위한 상호협약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각 대학 링크 3.0 사업단과 창업 지원단이 참여했다.

이들 대학은 협약에 따라 장흥지역 청년 창업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취업·창업 관련 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창업 관련 사업안 고도화 작업을 함께 할 방침이다. 또 장흥군 홍보단(서포터즈) 선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흥 야시장과 토요시장 증강현실(AR) 체험, 관광상품(굿즈) 제작 등 사업안이 나왔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에 젊은 청년들이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제안받은 사업안을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향토음식 맛 전문가 양성

선착순 지원...작품 전시회도

화순군이 화순향토음식학교에서 화순의 전통 맛 전문가로 거듭날 교육생을 모집한다.

화순향토음식학교 교육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주 3회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12일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교육이 끝나고 오는 10월 또는 11월에는 직접 만든 요리를 선보이는 작품 전시회를 연다.

교육생들은 화순 향토 음식문화를 계승·보급하는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수업을 받는다.

강의 내용에 대한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감·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대화의 기술을 터득한다.

식생활 지도안 교육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조리법 개발과 강의계획서 작성법, 담음새 기술 등을 배운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이나 농촌자원팀(061-379-5433~4, 54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맛춤 교육이 우리 군 향토 음식 전문가를 양성하고, 화순 향토 음식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 농업회의소 12개 읍·면서 정책간담회

담양군 농업회의소가 오는 18일까지 12개 읍·면을 돌며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담양군 농업회의소는 지난 3일 담양읍을 시작으로, 11일 수북면, 12일 고서면, 13일 대전면, 14일 봉산면, 17일 가사문학면, 18일 월산면 등을 찾아 간담회를 벌인다.

농업 정책간담회는 급변하는 농정 환경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농촌 인력 중개 업무와 도농 인력 플랫폼 가입 방법 등을 안내받았다.

올해 간담회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동행하며

'공익형 직불금 의무교육'도 하고 있다.

담양군은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부자 농촌 실현'을 위해 농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36% 늘려 편성했다.

이문태 담양군 농업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농업 상황을 타개할 맞춤형 정책을 건의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농업회의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